

창세기 읽기 오늘 열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8장과 9장은 노아 홍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를 마지막에 편집한 사람이 여기에 편집한 거잖아요.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거기에 넣은 겁니다. 좋은 이야기만 계속 하는 게 더 좋지 않은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인류 전체에게 내리는 재앙을 끌어들이는 게 뭐냐 하는 생각이 가능하죠. 구약 창세기의 노아 홍수와 같은 전 인류 전 지구적 차원의 재앙이 나오고 또 신약 성경의 마지막 대목 때에는 또 마찬가지로 묵시적 종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성경은 창조와 새 단어가 새 땅 완성이라는 관점에서 기록되었으나 동시에 그것은 인류 멸망을 가리키는 겁니다. 인류 멸망과 새로운 세계의 완성 외계까지 맞물려 있어요.

노아 홍수 이야기는 성경에만 나오지 않습니다. 고대인들도 인류가 그렇게 계속 가리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언젠가는 멸망한다고 본 겁니다. 창세기를 편집한 사람도 그런 관점에서 노아 홍수 이야기를 이 창세기 앞 단락에 기록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기 전예요.

제1장부터 11장까지를 구약성서 학자들은 원 역사라고 분류합니다. 우어 예슈테 라고 해요 모든 역사의 근원이 된다는 거지 1장부터 11 장이 실제적인 역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역사라고 해요 역사의 원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역사의 원천의 노아 홍수가 들어있습니다.

인류의 미래가 어떨지 지금 우리도 확정적으로 말할 순 없습니다. 한창 요즘 세계의 그 기상 학자들과 인류학자들이 거론하고 있는 기후 읽기가 현실이 되면 이 죽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카타스트로피, 대재앙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북극과 남극에 있는 빙하가 다 녹고 높은 산에 있는 만년설도 녹고 또 그것 만이 아니라 아주 급격한 기후의 변화, 한쪽엔 지나치게 가물고 한쪽은 너무 비가 많고 하는 일들이 지구의 생태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지구의 최상위 후식자 인 인류가 제일 먼저 멸망하죠. 제일 먼저 멸망한다 뭐 하는게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그 밑에 하위의 어떤 종들도 멸망하겠죠. 그러나 가장 상위에 있는 인간마저 아니면 더 먼저 멸종한다는 게 분명합니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여기저기서 듣기는 하지만 실감은 나지 않을 거예요. 지금도 얼마나 재밌는 일들이 많고 또 과학도 많이 발전했고 기후가 불안정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봄이 되니까 꽃이 피고 나뭇잎도 잘 푸르게 자라고 지구는 살만하다 생각을 합니다. 공연히 기후위기 운운해서 피곤하게 하지 말라 그런 주장도 가능합니다.

일전에 어느 교회의 유튜브 방송을 들었어요. 그렇게 많이 알려진 교회는 아닌데 구독자 수가 어마어마 하더라고요. 몇 십 만명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모르는 교회였었는데 저만 몰랐지 상당히 유명한 교회였나 봐요 킹제임스 버전을 예배에 성경으로 사용하더군요. 아주 극단적으로 킹제임스 버전 아닌 성경은 다 무

시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킹제임즈파 일겁니다. 성서 침례교회예요. 그 정확한 이름이 교회 이름이 기억이 않나네요. 뭐 체리티 뭐 어떻게 나가는데 거기에 여러 강사 들이 와서 강의를 많이 하네요. 우익을 대표하는 어떤 유튜버도 와서 강연하고 현재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이런 특징들이 있더군요. 아마 창조과학에 속한 강사 들도 오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기후위기 해서 지나치게 불안을 조성하는 거는 괴담에 가깝다. 그 사람이 과학자예요. 인류의 종말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후 위기가 아니라 예수의 재림, 공중 재림 잊지 마시고 우리가 휴거 받고 하는 그 초월적인 방식으로 종말이 일어나지 기후 위기 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런 거에 너무 부화뇌동 하지 마시라 그렇게 얘기 하더라고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봐요 그 얘기는 더 이상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창조과학과 유사 과학에 떨어져서 성경을 오해하고 이 현실에 대한 시각을 왜곡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아 홍수 이야기도 역사적 사실로 보시면 안돼요. 신앙적인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노아 홍수와 같은 신화 들은 다른 데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나일강에도 옛날부터 홍수가 많았구요. 바빌론 문명 그 지역에도 비슷한 이야기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 광주를 찾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을 지경이니까 성경을 얼마나 오해하고 있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노아 홍수가 7장부터 시작해서 8장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9장에는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류와 어떻게 새로운 계약을 맺으셨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앞에 처음 시작할 때 7장과 8장만 노아 홍수 이야기 인 것처럼 말씀드렸나요. 그렇다면 그것은 교정해야 되겠습니다. 노아 홍수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조금 넓게 보면 6장도 노아 홍수와 관련되는 거죠 거기에 노아 족보가 나오고 사람들이 얼마나 아 왜 떨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죄에 대한 심판이 노아 홍수니까 크게 보면 7장과 8장만 직접 그 홍수 사건에 대한 묘사이긴 하나 6장부터 10장까지가 노아 홍수 이야기라고 봐야 됩니다.

6,7,8,9,10, 11장은 바벨탑 이야기인데 사실은 이것도 노아 홍수와 같은 재난에서 우리가 멸망당하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그 만든 높은 탑이니까 이것이 노아 홍수와 바로 연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6장부터 11장까지가 다 노아 홍수 전승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원 역사인데 여기에서 1장에서 5장까지만 빼고 나머지는 다 노아 홍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분량으로 보더라도 노아 홍수가 창세기에서 비중 있게 다뤄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고대 인류가 고대 다른 문명권도 그렇지만 전승에 속해 있는 이들이 인류 멸망을 생각했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건 죄와 연관되는 거예요. 만약에 기후

위기로 인류가 멸망한다면 이게 개연성이 그렇게 낮은 건 아니에요. 하여튼 그런 인류 재난난을 통한 멸망, 그거는 여기 노아 홍수 이야기에서 죄가 너무 극성스러워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말하는 것처럼 기후위기도 큰 틀에서 보면 죄입니다. 죄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가 말하려는 신학적 관점이 사실은 대단히 옳은 거죠. 정확한 거죠.

1절부터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함 이게 앞에서도 나왔어요. 창세기 1장 28절, 8장 17절에 나오고 또 뒤에 9장 7절도 나옵니다. 지금 이 9장 1절에도 나온 걸 합하면 요 창세기 앞 단락에서 네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생육 번성, 땅에 충만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사람이 숫자가 워낙 작았으니까 자식들을 많이 낳고 그리고 곳곳에서 이렇게 퍼져서 많이 살고, 뭐 저 표현대로 충만한 거 가장 중요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람이 너무 많죠 지구의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숫자가 일단 너무 많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저 멘트가 나올 때는 아주 좋았습니다. 지금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 것 만이 문제가 아니라 많게 되니까 그 많은 숫자의 사람 중심의 먹이 사슬과 생태계가 재편성되는 겁니다. 짐승만 하더라도 지금 지구에 있는 짐승의 대부분이 가축입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다 야생동물이었습니다. 가축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다 가축이에요. 인간이 키워서 먹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곡식 이런 것들도 다 갖추게 먹을 수 있는 것을 대량생산 해야 됩니다. 여기서 벌어지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지요.

지금은 또 다른 차원에서 사람의 숫자가 줄어들어서 염려하는 나라들이 있는 거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같죠. 일본도 그렇다고 하고. 많은 나라들이 그 인구수가 줄어들어서 걱정을 합니다. 아 그래 정말 걱정할 일인지 아니지 저는 아직 동의하기 힘듭니다. 그 걱정한다는 것은 경제 문제거든요. 현재와 같은 상태의 경제 수준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더 확장해야 되는데 이게 인구 수가 줄게 되면 그게 줄어들지 않냐 걱정된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계속 젊은 사람들이 애기 많이 낳게 이렇게 정책을 쓰게 합니다..

아 그건 모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요 그래서 가끔 그런 통계 수치도 나옵니다.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 수가 얼마나 줄어들고 뭐 2070년이 되면 뭐 아니면 2100년 정도 되면 뭐 대한민국에 없어질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건 말이 되지도 않죠. 지금 남한만 본다면 5000만 명 정도 되지 않습니다. 반 수가 준다고 해서 우리나라 어떻게 되는 건 아닐텐데요. 2500만 명 정도 되면 쾌적하게 살 만한 땅이 되지 않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현실을 잘 모르고 좀 비현실적이고 이상적인 그 신학적 이상주의에 떨어져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인구가 너무 많다 라는 것만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 경제

문제만 조금 생각을 바꾸면 인구수가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죠. 어쨌든 고대 사회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한 게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2절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노아 홍수가 있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식물만 먹었어요.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는 동물까지 먹게 됩니다. 여기 3절에 나오죠 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 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이게 어떻게 되어서 저런 방식으로 이야기가 바뀌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할 수 있긴 있지만 제가 정확하게 아는 것도 아니고요. 채식으로부터 육식까지 가능한 시대 변화가 있었다 그런 정도로 알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너희를 두려워하면 너희를 무서워 하리니 하는 이런 표현들은 썩 좋아 보이진 않아요. 뭐 저게 현실이긴 하죠. 모든 동물들이 인간을 두려워합니다. 그 경쟁에서 여러 종들이 있잖아요. 그 종들의 그 경쟁에서 인간이 정상을 차지했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이 인간을 두려워하죠. 우리의 궁극적인 미래는 저런 두려움과 무서움 그런 식이 아닌 걸로 동물과 사람의 관계도 맺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물까지 이제 먹게 되었습니다. 이게 잘 된 일인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채식주의자들을 인정합니다. 또 존경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게 무조건 다 정답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는 많은 토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채식만 먹고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면 채식이 낫겠죠. 그 전문가들의 사람 건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채식만 갖고는 인간의 건강하게 살 수 없다고 하네요. 물론 여기서 어떤 것이 건강한 삶이나 하는 것도 논의가 되겠죠. 모두 전문적인 프로 운동선수들처럼 이렇게 좋고 체력도 좋고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동물성 단백질이 꼭 필요하다고 하네요 얼마나 정도 것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재는 거기에 우리가 매달려서 사는 것 같습니다.

4절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 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동물의 몸이 있잖아요. 육체, 동물의 육체, 살 피와 같이 먹지 말라는 명령이 여기 있습니다. 이 먹을거리 문제는 좀 복잡합니다. 근동 지역에서도 서로 생각들이 다르잖아요. 어떻게 절대적으로 옳다 그르다 말하기가 어려워요. 방금 채식주의와 반 쪽은 채식주의자들도 있고. 먹을거리 에 대한 생각도 정말 다양합니다. 완전한 채식주의자들은 우유도 안 마셔요. 달걀은 물론 안 먹고요. 근데 우리가 엄격하지 않은 채식주의자들은 우유와 달걀 이런 정도는 먹습니다. 저는 뭐 그런거 가리지 않고 먹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육식을 아주 즐겨하는 쪽은 물론 아니고요. 있으면 먹고 일부러 굳이 찾아서 꼭 먹어야 되겠다 하진 않습니다. 작년부터 인가 언제부터 인가 제가 정확하게 일시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의사 선생님 말 듣고 달걀은 하루에

두 개씩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하나 저녁에 하나.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근동 지역에서도 저 피를 마시는 민족들이 고대근동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피 마시는 일들이 있잖아요. 언젠가요? 1990년대인가 이천년도 초반인지 모르지만 그 곰 쓸개에서 나오는 피인가 뭔가 그거를 마시겠다고 곰을 사육해서 그 빨대 같은 거를 그 곰의 쓸개에 꽂아서 피를 빼는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참 끔찍한 일이죠. 몽고 쪽인가 어딘가 거기 유목민 들은 자기들이 키우는 양을 잡아서, 에스키모 쪽인가 보네요. 그런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럼 잡았을 때 거기 있는 피를 마신다 그래요. 그건 간 피가 뚝뚝 떨어지는 양을 생 간을 먹기도 합니다. 그게 영양학적으로 정말 좋은 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유대인들은 이 피를 금했습니다. 그래서 저런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개신교 어느 교파는 수혈까지 안 하잖아요. 그래서 좀 코미디 같은 이야기입니다. 수술할 때 자기 자녀가 수술할 때 수혈을 거부해서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게까지 한다네요. 물론 수혈 안 하고도 수술 잘 기술적으로 할 수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수혈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유대인들도 그 먹을거리에서는 굉장히 까탈스러웠습니다. 레위기나 민수기 등등에 보면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지 못한 음식 짐승이 딱 구별되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대로입니다.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 만 먹을 수 있습니다.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이게 그 건강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근동의 다른 민족과 구별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이 **피째 먹지 말라**는 이유는 이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 피가 생명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5절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고대 유대인들은 짐승을 잡아서 피는 따로 빼고 피가 없는 살코기만, 비계라도 하여튼 피를 제거하고 먹었습니다. 피를 제사지낼 때 먹기도 한 것 같은데요. 이에 반해서 근동의 다른 이방인들은 피를 그냥 마셨습니다. 피를 뿌리고 그런 일을 했죠. 유대 제사 의식 중에서도 피를 뿌리는 장면이 있긴 있어요.

6절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여기서 이제 짐승의 피 짐승은 **피째** 막지 말라고 했고요. 엄격하게 뭐 짐승의 생명 자체는 건들지 말라 그런 뜻이고 사람 더 그게 사람에게는 그게 더 엄격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하나님이 **여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이요 사람은 신성불가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저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하는 질문 도 아직 우리가 그 질문에 완전한

대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인간다움이죠. 영혼성을 생각하고 육체 배부른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영혼의 배부름을 찾고요. 그리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줄 알고 하는 그러한 인간의 그 존엄성을 드러낼 수 있는 현상 혹은 그 현상을 가능하게 하는 힘을 가르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가득하라는 말이 또 나오네요. 앞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7절까지 요 단락은 노아홍수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인 생육 번성 충만을 말합니다. 그럴만하죠. 모든 게 멸절도 버리고 말았으니까 사람이 다 비어 있으니까. 사람 만이 아니라 사실은 노아 방주에 들어온 짐승 이외에, 물고기는 예외고, 다 없어졌으니까 충만해야 되죠. 인간의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멸절된 상황 아래 하나님께서 새롭게 그 창조를 이어 가십니다. 창조의 보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 창조가 있고 이 노아 홍수도 새로운 창조인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